

朝日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 倭館*

—일본산 담배 및 담뱃대를 중심으로—

장 순 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담배의 조선 전래와 보급
- III.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국내 유입 경로와 유통
- IV. 일본산 담배 · 담뱃대와 조일문화 교류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가 왜관을 통해서 조선에 어떻게 전해졌고 생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조일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왜관을 통한 문화교류 연구가 주로 음식, 회화, 도자기 등에 주목한 것들이었고, 담배에 대해서는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15세기말 아메리카에서 서양으로 전래된 담배는 17세기 초반에는 조선에 전래되었다. 담배는 급속히 보급되고 재배되어 17세기 초부터 한반도의 절대 다수가 즐긴 기호품의 제왕으로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물질이 되었다. 18세기

* 본 논문은 2019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 주최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교류’ 학술대회 때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hyongae@hanmail.net

에는 국내에서 담배의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담배는 조선후기에 중요한 상품작물로 등장하였으며, 담배 수요의 증가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담배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산 담배, 즉 지사미는 최고급 담배로 인기가 있었다. 가공 기술면에서 조선에 앞선 일본산 담배는 담배가 전파된 첫 1세기 동안 동아시아 흡연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먼저, 일본산 담배는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쓰시마의 상인들이 왜관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왜관무역을 통한 수입되었다. 왜관의 개시 등에서 이루어진 사무역이나 밀무역의 형태로 수입되어 조선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왜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선물을 통한 유입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신사행과 문위행 등 일본사행을 통한 유입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선에 들어오게 된 담배와 담뱃대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로 전해져서 국내에 유통되었고, 조선 국내에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는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매우 비쌌으며, 국왕이 신하에게 선물로 줄 만큼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고, 동래지역을 비롯한 국내 장시를 통해서 유통되었다. 이러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유통은 경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담배에 관한 민요로 널리 불렸으며 ‘동래의 담바구’라는 노랫말로 불리고 전승되었다. 또한 일본 담뱃대의 영향으로 동래연죽과 부산연죽이 조선의 최고급 명품 담뱃대로 알려지고, 동래가 담뱃대 제작의 명산지로 문헌에 기록되었다. 이렇듯 동래·부산 지역의 담뱃대가 최상품으로 알려진 배경에는 왜관과 일본사행을 통해서 유입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왜관, 담배, 담뱃대, 왜관무역, 문화교류, 부산(釜山), 동래(東萊)

I. 머리말

1726년(영조 2년) 11월 13일, 쓰시마에서 연례송사인 부특송사선 2척이 왜관으로 건너왔다. 이틀 후인 15일에는 왜관에서 부특송사선의 짐 검사가 있었는데, 1호선 반자이마루 [萬財丸]의 선장[船頭] 후지사

키 이치로에몽 [藤崎一郎右衛門]과 2호선 야와타마루 [八幡丸]의 선장 사에키 초에몽 [佐伯長右衛門]이 신고 온 뱃짐 검사가 별 문제없이 끝났다. 16일에는 관수측에서 부특송사가 왜관에 도착한 것과 관련하여 왜관에 온 조선인 軍官 1인과 小通事 1인에게 삶은 고기와 술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전례대로 [例之通り]’ 군관에게는 썬담배 [刻多はこ] 3갑 [箱], 소통사에게는 2갑을 선물로 주었다.¹⁾ 이는 제43대 왜관 관수 요시카와 나이조노쥬 [吉川内藏之允]²⁾가 남긴 『館守日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정부가 일본사절의 상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조선후기 부산에 위치한 왜관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접촉과 소통을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간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인의 공식적인 소통과 접촉을 위해 허용된 공간이기도 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왜관은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인 만큼 왜관에 관한 연구는 제도사, 경제사, 사회사[생활사], 문화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왜관이 조일 양국인 간의 접촉과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공간이며, 그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는 등 왜관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다수 있었다.³⁾

1) 『館守日記』享保11年(1726) 11월 16일, “釜山より着船之爲祝詞軍官一人小通事壹人相附來り候付、煮肴御酒出之、例之通り軍官江刻多はこ三箱、小通事江同二箱遣之。”

2) 제43대 왜관 관수 吉川内藏之允 [平勝美]는 1726년 9월 11일 왜관에 부임하여 1728년 4월 18일까지 왜관에 체류하였다(허지은, 「근세 왜관 館守의 역할과 戶田頼母」, 『한일 관계사연구』 48, 2014, 181~186쪽 <표 1> 역대 관수의 이름 및 근무연월, 차례연, 봉진연, 상선연의 시행 연월일 참조).

3) 왜관을 통한 조일 문화교류를 주목한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다. 김성진, 「釜山倭館과 韓日間 文化交流」, 『한국문화논총』 22, 1998 ; 「朝鮮後期 金海의 生活相에 미친 日本文物」, 『人文論叢』 5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1998. 이현주,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

본 연구는 부산 현지인으로서 왜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래부 소속 하급 率屬이었던 군관과 소통사기⁴⁾ 일본측[쓰시마]으로부터 ‘전례대로[例之通り]’ 선물로 받았던 일본산 담배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관을 통해서 조선에 전해진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가 조선인들의 생활문화, 특히 담배문화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조일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왜관을 통한 문화교류 연구가 주로 음식, 회화, 도자기 등에 주목한 것들이었고, 담배에 대해서는 다뤄진 적이 없다는 것도 본 연구 시도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음을 밝혀 두며, 이러한 시도가 조선후기 왜관, 나아가 조선후기 한일 문화교류사 연구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조선후기 담배의 조선 전래와 보급

서양에 담배가 전래된 시기는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에 가서 그 곳에 사는 원주민인 인디언에게 담뱃잎을 얻어 전한 후부터라고 한

-18세기 東萊 在地畫員 卞璞의 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 14, 2008. 이훈상, 「조선 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144, 2008.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2009. 변광석, 「입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2009.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2009. 田代和生,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藝春秋, 2002;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2011. 정성일, 「倭館 開市 때 제공된 日本料理 기록의 비교(1705년, 1864년)」,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김강식, 「조선후기에 해항 도시 부산에서의 문화교섭 양상-초량왜관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이종수, 「조선시대 부산과 왜관의 음식문화 교류와 변동 분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4) 『增正交隣志』 권3, 「率屬」

다. 이후 담배는 급속히 전파되어 16세기에 필리핀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고, 17세기 초반에는 조선에까지 전래되었다.⁵⁾ 약 1세기 만에 전세계에 담배가 전래된 것이다.⁶⁾ 담배가 일본에서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은⁷⁾ 이수광(1563~1628)의 『芝峯類說』, 장유(1587~1638)의 『谿谷漫筆』 등 여러 문헌 외에 조선시대 잡가인 ‘담바귀 타령’ 등 민요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⁸⁾ 일본에서 조선에 전래된 담배는 급속히 보급·재배되어 담배가 들어온 지 10년 남짓 지난 시기에는 전라도 김제까지 재배가 될 정도였다.⁹⁾

이 풀은 병진(1616)·정사년(1617) 사이에 바다를 건너와 피우는 사람이 있었으나 성행하지는 못했다. 신유년(1621)·임술년(1622) 이래로는 그것을 피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 서로 교역하기에 이르렀다.¹⁰⁾

-
- 5) 담배의 전래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설이 있다. 첫째는 선조대(1568~1607)인 임진왜란 때 전래되었다는 설이다. 둘째는 1609년부터 1614년 사이에 전래되었다는 설로 1930년대 문일평이 주장하였다. 그는 그 시기가 임진왜란 후 왜관에서 조일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609년부터 『지봉유설』이 쓰여진 1614년 사이라고 보았다(문일평, 『담배고』, 『湖岩全集』 권2, 일성당, 1939, 394~397쪽). 셋째는 1618년 무렵에 전래되었다는 설이다. 이는 조선후기 『紀年通攷』·『大東紀年』·『芝陽漫錄』과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근거한 것이다.
 - 6) 이영학, 『담배의 사회사 - 조선후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역사와 비평』 12, 1991, 122쪽.
 - 7)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로에 대해서는 첫째,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설, 둘째,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설, 셋째는 위의 두 경로를 모두 생각할 수 있다는 설 등이 있으나, 뒤의 두 설은 증빙 문헌이 빈약하며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이영학, 『한국 근대 연조 산업 연구』, 신서원, 2013, 31쪽).
 - 8) 성경인·장사훈 편, 『조선의 민요』, 1949, 『담바귀 타령(一)』, 232~236쪽,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 울산의 담바귀야, 은을 주려 왔느냐, 금을 주려고 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담바귀 씨를 가지고 왔네, 여기 저기 전 산 밑에, 담바귀 씨를 술술이 뿌려…….”
 - 9) 張維, 『谿谷漫筆』 권1.
 - 10) 『인조실록』 인조 16년 8월 갑오(4일)

위 인용문에서는 조선에 전래된 담배가 급속히 보급·재배되어 일찍부터 농가에서 재배하는 필수 작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래 초기에는 약재로 인식되어 보급되었던 담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초보다는 기호품으로 애용되었고, 손님을 접대할 때 차나 술 대신 담배를 권하는 풍습이 생기면서 煙茶, 煙酒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남녀노소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담배의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의 담배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국 담배는 17세기 초부터 한반도의 절대 다수가 즐긴 기호품의 제왕으로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물질이 되었다.¹¹⁾ 1653년(효종 4) 제주도에 표류하였다가 1666년 조선을 탈출하여 고국에 돌아간 네델란드인 하멜이 “(조선에서는) 4, 5세 때에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멜표류기』에 언급할 정도였다. 결국, 이 시기가 되면 일본과 조선에서 담배는 막강한 중독성과 전파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담배의 수요가 증가하자 담배 생산농가에서는 자신들의 소비 충족 외에 판매를 고려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담배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1620년대가 되면서 조선은 그 잉여생산물을 새로운 시장인 중국으로 전파하게 된다. 조선의 대다수 지역을 흡연자로 넘치게 만든 담배는 자연스럽게 흡연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중국 북방지역으로 급속하게 파급되었다.¹²⁾ 특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국내 수요의 증가와 함께 대외적으로 담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영향으로 담배 재배도 확대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포로의 속환과 몽골 지역에서 소를 구입하기 위해 담배가 칙사 행차의 반전[노자]으로서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어땀든 호란은 조선에 퍼진 흡연 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청]에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¹³⁾ 이렇듯 국내 및 대외 관계에서

11) 안대회, 『담바고 문화사』, 문학동네, 2015, 5쪽.

12) 안대회, 위의 책 37~38쪽.

담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 지역도 증가하게 되었고 아울러 담배의 수요도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17세기 중엽에는 17세기 초보다 많은 사람에게 담배가 보급되어,¹⁴⁾ 17세기에 이미 담배는 ‘동북아시아의 문 제야’가 되었다.¹⁵⁾

한편 18세기에는 국내에서 담배의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담배의 재배가 곡물재배보다 이익이 커지자 농민들은 곡물을 재배하던 비옥한 토지에 담뱃잎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어떤 곳에서는 지역 전체가 담뱃잎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1730년대 전라북도의 진안, 장수 지방에서는 담배 재배 산지가 형성될 정도였다. 그래서 18세기 말에는 담배 재배산지로 전라도의 진안·장수, 평안도의 삼등·성천·강동·평양, 황해도의 신계·곡산·토산, 강원도의 금성·안협, 충청도의 정산, 경상도의 영양 지방 등이 두드러졌다.¹⁶⁾

이로써 담배는 조선후기에 중요한 상품작물로 등장하였으며, 담배 수요의 증가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담배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⁷⁾ 이렇게 생산된 담뱃잎은 서울과 지방에서 판매되었고, 18세기에는 가공방법이 발달하면서 담뱃잎을 잘게 썰은 折草를 담뱃대에 담아 피우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17세기 중엽 이후 서울에서는 葉草塵이라는 市塵이 생겼으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私商들이 등장하여 엽초전 몰래 담배판매에 종사하였으며, 1791년 신태통공이 실시되면서 담배매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지방에서도 대

13) 역사학자 문일평은 「담배고」에서 여진족이 정묘호란 이후에 담배 맛을 알게 되어 거금을 주고 조선에서 담배를 구입하였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는 아예 담배 종자를 사들여 가서 재배하여 자급하였다고 하였다.

14) 『伊溪遺稿』(奎4758). 『南草答辯』(1646년), “至於南草之吸煙 則上自公卿下至牧豎 內自中國外至蠻貊 無有不感好”.

15)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 313~317쪽.

16) 안대희, 앞의 책, 123쪽.

17) 이영학, 앞의 논문, 1991, 122~123쪽.

도시 또는 광업이나 수공업 촌락 및 장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매매되어 담배는 18세기 말에 지방 장시에서 쌀·면포·어물·소 등의 물품 다음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이로써 담배는 17세기 초 이래 한반도의 절대 다수가 즐긴 기호품의 제왕이자 경제의 블루오션이었고, 일상 삶에서 중요한 물질이¹⁸⁾ 되었다.

Ⅲ.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국내 유입 경로와 유통

담배는 조선후기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조선에서는 南靈草, 淡泊塊, 煙草, 淡婆古, 淡婆姑, 南洋草, 煙酒, 煙茶, 相思硝, 長岐夜話草, 南草, 妖草, 萋, 菸, 煙, 踏花鬼, 反魂草, 일본에서는 다바코[タバコ]라고 불렀으나 일반적으로 南草·煙草로 통용되었다.¹⁹⁾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담배는 17세기 초엽 일본에서 전래되었고 곧바로 국산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산 담배, 즉 ‘지사미’는 최고급 담배로 인기가 있었으므로, 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 청에 지사미를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정부가 중국의 칙사에게 하사하는 공식적인 물품 가운데 긴 담뱃대[長竹]와 함께 지삼초와 꿰지삼초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듯 지사미는 17세기 조선과 청의 사절단과 관련한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지사미는 원래 잘게 썬 일본 담배를 말한다.²⁰⁾ 비슷한 말로 실담배,

18) 안대회, 앞의 책, 5쪽.

19) 문일평, 『담배이야기』, 온이퍼브, 2015, 17쪽.

20) 정조대 학자인 유득공(1748~1807)의 『古芸堂筆記』(권 5)에는 “倭呼煙爲淡婆姑 呼截煙爲支三伊 我人語亦然 蓋此草本自倭中來 故我人學倭語而呼之也” 라고 되어 있고, 다시 설명을 이어서 “今人不知其爲倭語 妄解之曰 淡婆古者 膽破塊也 煙性破痰 故也 支三伊者 鎡三味也 湖南之鑛安 關西之三登 出佳煙故也 其說似通 然傳舍甚矣 自古妄解者 類多如此”라고 기술하였다(문일평, 앞의 책).

썬담배, 쇠틸담배, 쌀담배, 썬레기 등이 있다. 지사미는 한자로는 ‘枝三’이라 쓰고 ‘지사미’라 불렀다. 이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까지 널리 쓰이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춘 말이다.²¹⁾ 지사미는 일본어에서 ‘기자미 다바코[刻みタバコ]’로 불렸으며, 보통 다바코를 생략하고 사용하였다. 기자미 다바코는 잎담배를 잘게 썰어서 담뱃대에 채워 피우는 것으로 발음이 ‘지사미’로 정착되면서 한자로 枝三이라고 썼다.²²⁾ 지사미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었는데, 일본산 실담배를 가리킬 때는 倭枝三, 조선산 담배는 鄉枝三 또는 남초라고 하였다. 지삼초 또는 지삼남초, 細切南草 등으로도 불렸으며, 포장 상태에 따라 櫃枝三, 匣枝三, 封枝三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퀘지삼이 가장 고급스럽고 널리 판매되었으므로 퀘지사미는 담배의 통칭으로도 쓰였다.²³⁾

품질 좋은 실담배 내지 썬담배인 지사미는 1719년 통신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하여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1681~1752)의 기록에 일본의 담배 가공법이 “찌고 말려서 독기를 없애며 실처럼 가늘게 썬다”²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본만의 특별한 가공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가서야 가공방법이 발달하면서 담뱃잎을 잘게 썬 折草를 담뱃대에 담아 피우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조선 담배에 비해 가공 기술에서 앞선 일본산 담배는 담배가 전파된 첫 1세기 동안 동아시아 흡연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 인기 덕분에 가공한 담배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던 지사미란 이칭이 담배

21) 안대희, 앞의 책, 53쪽.

22) 徐浩修, 『海東農書』 권4 “大抵出於南番 故俗稱南草 其切細者曰枝三伊 此即倭語也 今以關西所種 爲佳品號爲西草 又曰香草”.

23) 안대희, 앞의 책, 54~55쪽.

24) 申維翰, 『靑泉先生續集』 권7, 『海東聞見雜錄』 상. “我國所謂南草 本自東萊倭館而得來 俗諺呼爲淡麻古 倭音多葉粉之訛也 倭人所呼 亦如我國之諺 而其義 則取多葉草而細粉故云爾 觀其蒸乾殺毒 細切如絲 每人必具煙管二枚 遞易而吸之 不令熱氣逼喉吻 食物之致精如此”.

자체를 뜻하는 범칭으로 통했다.

1. 왜관을 통한 유입

일본과 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조선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던 최고급 일본산 담배인 지사미는 어떻게 조선에 유입되고 유통되었을까?

가. 왜관무역을 통한 수입

① 일본 장사치가 부산 포구에 배를 대고 약 한 가지를 팔았다. 그 이름이 痰破塊인데 덩어리진 가래를 잘 낫게 한다고 했다. 그 약을 복용할 때에는 구리로 만든 작은 술잔을 쓰는데 그 크기가 참새 알을 반으로 갈라놓은 정도다. 여기에는 한 자 남짓되는 자루가 달려 있는데 술잔에 작은 구멍이 뚫려서 자루 속으로 통해 있다. 자루의 주둥아리는 좁아져 잇새만하다. 잎을 가루로 내어 술잔 속에 채우고 불을 붙여서 자루 주둥아리를 통해 그 연기를 들여마신다. …, 25)

② 우리나라의 소위 南草란 것은 본래 동래 倭館으로부터 얻어 온 것인데, 속담에 淡麻古 곧 왜말에 多葉粉이란 품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왜인도 역시 부르기를 우리나라 속음처럼 부른다. 그러나 뜻은 잎이 많고 가는 가루[粉]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찌서 말리어 독을 제거하고 실처럼 가늘게 썰어서 매인이 반드시 담뱃대 두 개를 가지고 번갈아 피워서 더운 기운이 목구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니, 식물에 대하여 정갈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26)

③ 소를 사기 위한 後運에 쓸 枝三草를 경상감사가 비축해 놓은 목

25) 유몽인, 『담파귀설』; 안대희, 앞의 책, 32~33쪽에서 재인용.

26) 申維翰, 『海遊錄』, 부문전집록

먼을 덜어 내어서 東萊府에서 사들이게 한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東萊府使의 첩정 안에 ‘보낸 30동에서 28동을 덜어 내어 지삼초 1,200근을 사고, 2동은 작은 烟竹 2,300개를 사서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삼초를 看品해 보니 倭의 지삼초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장사꾼이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습기가 많이 스며든 것으로 봐서 이는 필시 왜학역관이 성의없이 자신들의 돈으로 쓸모없는 물건을 사서 구차하게 숫자만 채워 보냈을 것이니 지극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왜학역관을 倂司로 하여금 우선 추고하게 하고 지삼초를 다시 마련해서 바치도록 하소서. 동래부사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하소서.²⁷⁾

④ 이시해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第三使가 이형장을 시켜 전언하기를, ‘우리가 돌아간 뒤 攝政王과 여러 왕에게 바쳐야 할 물품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 칙사가 각각 枝三 1000匣씩 얻어 가기를 원하니, 주상께 아뢰어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정 칙사는 또 그 두 배의 수량을 얻기 원한다고 합니다. 겨울에 칙사 행차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동래에서 지삼을 사 왔었는데, 그 비축분으로 수량을 맞춰 들여보내 주겠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 하였다.²⁸⁾

사료 ①과 ②는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쓰시마 상인들이 왜관에

27) 『承政院日記』 인조 16년(1638) 2월 10일, “又啓曰 質牛後運所用枝三 除出慶尙監司所備木 使之質得於東萊府者 實非偶然 而今者東萊府使牒呈內 以所送三十同 除出二十八同 質得枝三一千二百斤 二同則小烟竹二千三百箇質送云云 枝三看品 則非倭枝三 乃我國商人所賣之物也 且多濕氣 此必倭譯 不爲用意 或售己貨不可用之物 苟充以送 極爲痛惡 當該倭譯 令倂司爲先推考 枝三使之改備以納 東萊府使 亦難免不察之失 請推考 答曰 依啓 備局瞻錄”.

28) 『承政院日記』 인조 25년(1647) 3월 8일, “李時楷 以戶曹言啓曰 第三使 令李馨長傳言曰 俺等還歸之後 攝政王及諸王處 多有所獻之物 三使欲爲各得枝三一千匣 啓知 寬給 鄭使又欲倍數以得云 曾於冬間 聞有勅行之期 質來于東萊矣 以此所儲 準數入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서 무역을 하게 되었고, 일본 상인들이 배를 대고 ‘담과괴’를 팔았다는 부산 포구가 왜관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즉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약으로 들어왔고, 부산 왜관에서 쓰시마 상인들에 의해 전해졌음을 의미한다.

사료 ③은 1638년 2월 18일 몽골로 소를 구입하러 가는 사절단이 떠나기 8일 전, 비변사에서 담배 조달에 연루된 큰 비리를 적발하고 조정에 올린 보고서로, 국가의 대사를 위해 거금을 들여 왜관에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왜학역관이 값비싼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 대신 저가의 조선산 담배와 담뱃대로 대체하고 일본산으로 속이려 시도한 횡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때 경상감사가 조달한 목면은 1.18필로 왜지삼 1근의 값을 치를 만큼 고가의 것이었으며, 청에 보내는 최상품의 담배는 왜관에서 수입한 담배, 즉 왜지삼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사건의 발생은 조선의 담배 가공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일본산 담배와 품질을 겨룰 수 있을 만큼 향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료 ④는 1647년 3월 8일에도 섭정왕 도르곤을 비롯한 청나라 황족에게 선물할 지사미를 동래에서 사오겠다는 호조의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왜관에서 담배의 중개무역이 전개되었던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관은 당시 대항해시대의 국제 무역품이 일본이란 거점을 통해 들어오는 통로역할을 한 곳으로, 왜관이 담배 교역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왜관이 담배 교역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申維翰(1681~?)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남초라는 것은 본래 동래 왜관으로부터 얻어왔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만 담배는 조일간의 공무역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조선 정부가 거래를 금지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종류나 수량에 제한이 없었던 開市貿易이나 密

貿易의 형태로 수입되어 조선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²⁹⁾ 즉, 쓰시마의 상인들이 일본산 담배를 왜관에 가져와 조선정부와 조선 상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던 것이다.

나. 왜관 출입 조선인과 관수의 선물 수수를 통한 유입

조선인의 경우 역관 등 직임을 가지고 공무로 왜관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래부사의 승인이 없는 왜관 출입은 통제되었다. 그럼에도 왜관의 운영과 대일 교류를 위해 직임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이 왜관을 출입한 것도 사실이다.³⁰⁾ 통신사, 문위행, 선위사, 접위관, 경상감사, 동래부사, 부산첨사, 왜학역관, 호조 수세관 등 조선의 고위 관직자들과 장인 등 기술자, 의원, 화원 등이 그들이다. 때로는 지역 민들도 왜관을 왕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인이 접촉하면서 문화 교류·기술 교류·미술 교류가 진행되었고, 양국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물의 전달과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다.³¹⁾

다음은 제43대 왜관 관수 요시카와 나이조노조가 왜관에 부임한 직후인 1726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727년 10월까지 1년 동안 왜관을 출입한 조선인 군관과 소통사에게 관수측에서 선물로 일본산 담배를 건넨 사례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군관과 소통사는 왜관과 직접 관계되는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쓰시마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종종 뇌물이 제공되기도 하였다³²⁾.

29) 김동철,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 - 밀무역을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61, 1995.

30) 김성진, 앞의 논문. 양홍숙, 앞의 논문.

31) 조선어 통사였던 小田幾五郎의 『通譯酬酢』에는 왜관을 방문한 조선인에 대한 접대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돌아간 후 역관과 나누었던 대화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왜관에서의 조선인 접대를 중심으로 한 조일간의 교류의 실상과 조선어 통사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小田幾五郎와 『通譯酬酢』에 대해서는 허지은, 앞의 논문, 2010 참조.

32) 일본측은 兩譯이라고 불리는 훈도와 별차뿐 아니라 30여명에 달하는 소통사에 대해

<표 1> 왜관 출입 조선인 군관·소통사가 관수에게서 선물로 받은 일본산 담배

순번	일시	왜관 출입 사유	대상	수량	종류
1	1726. 11.16.	부산첨사가 부특송사의 着船 祝詞	군관 1인	3箱	刻多はこ
			소통사 1인	2箱	
2	12.18.	부특송사 다례	군관, 소통사	‘例之通り’	刻多葉粉
3	12. 29,	부산포에서 歲暮의 祝詞 선물을 보내움	군관	‘例之通り’	箱多葉
4	12.31.	동래부에서 歲暮의 祝詞 선물을 보내움	군관	‘例之通り’	割多葉粉
5	1727. 1.9.	동래부에서 年頭 선물을 보내움	군관	‘例之通り’	刻多葉粉
		부산포에서 年頭 선물을 보내움	군관	‘例之通り’	刻多葉粉
6	윤1.12	접위관과 동래부사가 三判使 다례 참석	군관	3箱	刻多はこ
			소통사	2箱	
7	윤1.22.	차왜접대 접위관, 동래부사 수행	군관	3箱	刻多はこ
			소통사	2箱	
8	윤1.26.	경상도 관찰사가 동래에 오면서 선물을 보내움	군관	3箱	刻多はこ
			소통사	2箱	
9	2.15.	동래부사, 부산첨사 연향	군관	‘例之通り’	箱多葉粉
10	4.24.	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例之通り’	刻たばこ
			소통사	‘例之通り’	
11	5.4.	동래부사, 부산첨사 단오 祝辭, 선물	군관	2箱 ³³⁾	刻たはこ
			소통사	2箱	

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713년에는 소통사에게 ‘통사배령은’이라는 은이 지급되었다. 소통사는 이 은으로 ‘義田’이라는 토지를 구입하였을 정도로 일본인과 소통사는 유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통사는 조선사람이지만, 오로지 쓰시마를 위해 일한다고 인식될 정도였다. 조선 조정에서도 소통사를 일본인의 심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大場生與, 『對馬藩による朝鮮側小通事への援助』, 『三田中世史研究』 4, 1997. 김동철, 『17~19세기 東萊府 小通事の 編制와 對日活動』, 『지역과 역사』 17, 2005, 218쪽).

33) 이때에는 왜관측에서 다른 때에 군관에게 刻みたばこ 3箱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2箱

12	7.2.	以酒菴 봉진연, 동래부사, 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例之通り’	刻多葉粉
			소통사	‘例之通り’	
13	7.9.	특송사, 동래부사·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例之通り’	刻たはこ
			소통사	‘例之通り’	
14	9.13.	萬松院送使, 동래부사·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例之通り’	刻たはこ
			소통사	‘例之通り’	
15	10.6.	萬松院送使 봉진연, 동래부사·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例之通り’	刻たはこ
			소통사	‘例之通り’	
16	10.9.	兒名送使 연향, 동래부사·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例之通り’	刻たはこ
			소통사	‘例之通り’	
17	10.16	부특송사 다래, 동래부사·부산첨사 대청행	군관 1인	3箱	刻たはこ
			소통사	2箱	
18	11.1.	부특송사, 동래부사·부산첨사 문안	군관 1인	3箱	刻たはこ
			소통사	2箱	
19	11.6	부특송사, 동래부사·부산첨사 문안	군관 1인	3箱	刻たはこ
			소통사	2箱	
計			군관	59箱	
			소통사	32箱	

*출전: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享保 11년, 12년 『館守日記』 1, 2, 3, 4, 5권(관수: 吉川内藏之允)

위 『관수일기』에 따르면, 왜관에서 왜관 수리 때나 왜관을 방문한 조선인을 접대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술과 함께 ‘스이모노[吸物]’라는 인주용 국물, 과자, 삶은 고기를 내놓았다. 또한 양역이나 판사 등이 업무 외 구경 등을 위해 왜관에 들어올 때도 삼단 찬합, 술, 고기 등을 내놓았다. 그리고 왜관의 하급업무 담당자인 군관과 소통사가 업무상 왜관에 들어오면 왜관측에서는 일본 요리를 내놓고, 술과 스이모노를 접대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전례대로’ 담배를 선물하였다.

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왜관에서는 1726년 11월부터 1년 동안 군관에게는 17회에 걸쳐서 담배가 선물로 제공되었는데, 군관에게는 59상자의 썬 담배[刻タバコ]가, 소통사에게는 14회 동안 32갑의 썬 담배가 제공되었다. 현재로서는 1갑에 얼마나 많은 양의 담배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돈으로 계산해 보면 상당한 액수였음은 분명하다.

17세기 사료에 따르면 일본산 담배, 즉 왜지삼 가격은 매우 비쌌으며,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1639년(인조 16)에 몽골에서 농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왜지삼 가격이 지삼 1근에 면포 1.18필에 해당했으며,³⁴⁾ 1682년(숙종 8)에는 사행에 필요한 왜지삼을 구입하는 데 평소에는 千匣의 가격이 은자 20냥이었는데, 당시에는 25~26냥을 주어도 쉽게 구입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³⁵⁾ 연초 1근의 가격이 은 1냥으로 취급되었으며³⁶⁾ 의주의 雇價廳에서는 지삼을 은이나 종이 등의 물품과 함께 고리대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³⁷⁾ 어떤 武人이 담배 1駄를 이조판서 사위에게 뇌물로 주고 감찰 직위를 얻어 조정에서 물의를 빚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³⁸⁾

위의 사례는 왜관 업무에 종사하는 하급 직책인 군관과 소통사의 예에 한정된 것이지만, 왜관의 운영과 대일 교류를 위해 직임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이 왜관을 출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통신사, 문위행, 선위사, 접위관, 경상감사, 동래부사, 부산첨사, 왜학역관, 호조수세관 등 조선의 고위 관직자들과 장인 등 기술자, 의원, 회원 등을 통해서도, 때로는 지역민들을 통해서도 왜관을 통한 일본산 담배의 유통

34) 『비변사등록』 5책, 인조 16년 2월 10일.

35) 『비변사등록』 숙종 8년 3월 1일.

36) 『비변사등록』 인조 22년 10월 23일, “南草之例 員役所持之數 以銀一兩 淮南草一斤 則當爲五十兩 以此定數爲白乎矣”.

37) 『비변사등록』 인조 22년 5월 15일.

38) 『숙종실록』 숙종 3년 12월 병오(4일).

은 가능했을 것이다.

2. 사행을 통한 유입

조일 양국간에 행해진 외교교섭 및 외교행위에서 주고받는 국서 및 서계에는 예외 없이 별폭이 포함되었다. 별폭은 외교상대 간에 선물로 주고받은 예물 목록으로, 이때에 주고받은 것을 公禮單이라 하였다.

조선 후기 일본을 왕래한 사절단으로는 통신사행과 문위행이 있다. 통신사행은 조선 국왕이 일본 최고 통치자인 막부 쇼군 [將軍]에게 보낸 외교 사행으로, 쇼군의 쇼군직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에도 [江戶]를 왕래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초기 3회의 회답겸쇄환사를 포함하여 총 12회 파견되었다. 그리고 쓰시마에는 54회에 달하는 문위행을 파견하였다. 문위행은 왜학역관이 우두머리로 임명된 사절로 주로 쓰시마도주 소씨[宗氏]를 위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조선은 일본의 중앙 정부에 통신사를 파견하고 쓰시마에는 문위행을 파견하였으며, 이들 사행 중에 양국의 외교 당사자 간에는 국서 및 서계를 주고받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 공예단이라는 선물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통신사나 문위행은 공예단 외에도 막부장군이나 쓰시마도주를 비롯하여 막부 또는 쓰시마 측의 고위 관료나 측근에게 사적으로 전달하는 예물 목록을 지참하였는데, 이를 私禮單이라고 하였다. 통신사행의 경우 三使가 지참한 사예단은 쓰시마 측에는 쓰시마도주를 비롯하여 반쇼인[萬松院], 이테이안[以酏庵], 세이잔지 장로[西山寺長老], 봉행[奉行], 호행정관(護行正官), 부관(副官), 재판(裁判) 3인 등에게 지급되었고, 막부측에는 쇼군과 구 쇼군, 장군직 계승자[若君], 집정(執政) 5인 등을 비롯하여 막부측의 고위관료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이에 대한 답례로 막부측과 쓰시마도주, 사행이 지나는 각 지역에서는 삼사

에게 담례로 예물을 지급했는데, 이를 사회예단(私回禮單)이라고도 하였다. 삼사가 받은 사예단은 사행이 끝나고 귀국 후 수행원들에게 분배되었다.³⁹⁾

① 대마도주가 재관왜에게 시켜 은담뱃대[銀煙竹] 4개와 담배[南草] 세 켤적을 보내왔다. 세 당상 앞으로는 2개, 세 판사 및 제술관·良醫 앞으로는 각기 1개를 보냈는데, 판사 이하는 담배 켤적에 색칠이 없었다. 담배 켤적의 모양이 매우 묘하여 붉은 실과 그림을 그린 비단으로 그 허리를 묶어 놓았다. 또한 外櫃에도 담았는데 또한 기묘하였다.⁴⁰⁾

② 바람 불고 비 왔다. 그대로 적간에 머물렀다. ○ 도주가 담배[煙草] 3근과 삼중(杉重) 하나씩을 각각 바쳤다. 당상 앞으로는 각각 담배 두 근, 삼중 하나를 보냈고, 상관들에게는 담배 30근을 보냈다.⁴¹⁾

③ 비. 상관(上關)에 머물렀다. 도주가 하인을 보내어 문안하고 삼합과 煙草 3근을 보내 왔다. 저녁 뒤에 종사는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나와 정사는 고향 소식을 듣지 못하여 한없이 서운했다.⁴²⁾

사료 ①과 ②는 1682년 임술통신사행에 당상역관으로 참여한 洪禹載가 남긴 『동사록』의 내용이다. 통신사행 당시 쓰시마도주는 재관왜를 통하여 3명의 당상역관, 제술관, 양의 등에게 은 담뱃대와 담배를 선물로 지급하였다.

사료 ③은 1711년 신묘통신사행의 부사 任守幹이 남긴 기록이다. 통

39) 사예단(私禮單)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dataID=00008140@AKS-2013-CKD-1240001_DIC, 2020. 1. 7.).

40) 洪禹載, 『東槎錄』, 임술년(1682) 6월 28일.

41) 洪禹載, 『東槎錄』, 임술년(1682) 7월 12일.

42) 任守幹, 『東槎日記』, 신묘년(1711) 9월 4일.

신사행이 가미노세키 [上關]에 머물렀을 때 쓰시마도주가 통신사에게 하인을 보내 문안하고 삼합과 담배 3근을 선물로 보내왔다는 내용이다. 위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신사행원과 문위행 실시 당시 쓰시마나 통신사가 지나는 일본 각 지역에서 쓰시마도주, 각 지역의 번주, 막부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는 담뱃대와 담배가 포함되었다.

<표 2> 1811년 통신사가 받은 막부로부터 받은 잡물 분배기⁴³⁾

수행원	인원	잡물 목록	비고
군관兵房	2	각각 설면자(雪綿子 폴솜) 5과(把), 금병풍(金屏風) 1좌(坐), 금갑경(金匣鏡) 1좌, 남항라(藍項羅) 1필, 용단색 각기소리(龍丹色各其所里) 1좌, 유주전자(鑰酒煎子) 1좌, 동대야(銅大也) 1좌, 능화지(綾花紙) 50장, 동식로구(銅食爐口) 1좌, 황련(黃蓮) 반 근.	
日供	2	각각 설면자 5과, 옥색주(玉色紬) 1필, 소별(小別) 각기소리 1좌, 황련 반 근, 시회사층합(蒔繪四層函) 1좌, 사대접시(砂大楪匙) 1좌, 동대야 1좌, 동주전자 1좌, 동식로구 1좌.	
三堂譯	3	각각 설면자 7과, 남비(南飛) 2좌, 지행담(紙行擔) 1건, 동주전자 1좌, 미선(尾扇) 1명, 연죽(煙竹) 1개	○
製述官	1	설면자 5과, 채화연갑(彩畫硯匣) 1좌, 금갑경 1면, 진서(晉書) 1질(秩), 산우별찬합(蒜隅別饌盒) 1좌, 동대야(銅大也) 1좌, 색시전지(色詩箋紙) 50장, 황련(黃蓮) 반 근, 미선(尾扇) 1명	
掌務官	1	설면자 7과, 화초초(花草綯) 1필, 소별각기소리(小別各其所里) 1좌, 황련(黃蓮) 반 근, 산우찬합(蒜隅饌盒) 1좌, 시회사층합(蒔繪四層盒) 1좌, 일인면도(一人面道) 1좌, 전골(煎骨) 1좌.	

43) 柳相弼, 『東槎錄』, 「江戸所送雜物分配記」.

堂下譯	4	각각 설면자 5과, 동주전자 1좌, 황련 반 근, 식로구 1좌, 유개화보아(有蓋畫甫兒) 1개, 철전망(鐵煎網) 1건, 유개칠보아(有蓋漆甫兒) 1개	
畫師·寫字官	2	각각 설면자 5과, 수촉룡(手燭籠) 1좌, 황련 반 근, 유개사보아(有蓋沙甫兒) 1개, 동주전자(銅酒煎子) 1좌, 납보아(鐵甫兒) 1개, 연죽 1개	○
理馬·喂鷹·兩騎將	4	각각 설면자 3과, 채화보(彩畫褌) 1건, 동주전자 1좌, 유개칠목보아(有蓋漆木甫兒) 1개, 주개납미(朱蓋南飛) 1좌.	
陸次官	9	각각 설면자 3과, 유개칠목보아 1개, 납종자(鐵宗子) 1개, 동주전자(銅酒煎子) 1좌, 부채[扇子] 2병	
廳直	2	각각 설면자 3과, 철망장(鐵網穢) 1차(次), 납접시(鐵楪匙) 1개, 전룡(煎籠) 1건.	
通事	10	각각 설면자 2과, 유개화보아 1개, 납보아(鐵甫兒) 9개, 추자(錐子) 1개, 부채[扇子] 2악(握)	
都沙工	4	각각 설면자(雪綿子) 2과, 우산(雨傘) 1병(柄), 유개화보아(有蓋畫甫兒) 1개, 목보아(木甫兒) 3개	
沙工	12	각각 설면자 2과, 진피(陳皮) ○대(岱), 부채[扇子] 2병, 미선(尾扇) 1병, 남초(南草) 2봉(封), 연죽(煙竹) 1개 , 납접시(鐵楪匙) 3개	○
禮房	2	각각 설면자 5과, 금병풍(金屏風) 1좌, 홍주사(紅蛛絲) 1필, 황련(黃蓮) 반 근, 동대야(銅大也) 1좌, 능화지(綾花紙) 50장, 목갑경(木匣鏡) 1면, 소별각기소리(小別各其所里) 1좌, 유주전자(鑰酒煎子) 1좌, 우산(雨傘) 1병	
工房	2	각각 설면자 5과, 금병풍 1좌, 홍주(紅紬) 1필, 황련 반 근, 연죽(煙竹) 1개 , 소별각기소리(小別各其所里) 1좌, 유주전자(鑰酒煎子) 1좌	○
檢船	2	각각 설면자 5과, 무족대반(無足大盤) 1좌, 홍주 1필, 황련 반 근, 봉서지(奉書紙) 50장, 동대야 1좌, 피지상(皮紙箱) 1좌, 동주전자 1좌, 우산(雨傘) 1병	

書記	2	각각 설면자 5과, 채화연갑(彩畫硯匣) 1좌, 포(布) 1필, 산우찬합(蒜偶饌盒) 1좌, 봉서지 1축(軸), 유개납좌(有蓋鑲坐) 1좌, 황련 반 근, 유리잔(琉璃盞) 1개, 우산(雨傘) 1병, 동대야(銅大也) 1좌	
乾糧官	2	각각 설면자 7과, 각기소리(各其所里) 1좌, 동대야(銅大也) 2좌, 유족대반(有足大盤) 1립(立), 동주전자(銅酒煎子) 1좌, 황련 반 근, 시회사층함(蒔繪四層函) 1좌, 전골(煎骨) 1좌, 갈분(葛粉) 1궤(櫃)	
醫員	2	각각 설면자 5과, 황련 반 근, 납보아 1개, 홍항라(紅項羅) 1필, 동주전자 1좌, 유개칠목보아(有蓋漆木甫兒) 1개, 능화지(綾花紙) 50장	
伴尙	2	각각 설면자 3과, 황련 반 근, 사찬합(砂饌盒) 1좌, 납보아 1개, 능화지 50편	
別陪行	1	설면자 3과, 황련 반 근, 목감경(木匣鏡) 1면(面), 유개화보아(有蓋畫甫兒) 1개, 동주전자 1좌	
小童	15	각각 설면자 3과, 화초초(花草綯) 1필, 연죽(煙竹) 1개, 납보아 1개	○
及唱	4	각각 설면자 2과, 반목보(班木褌) 1건, 우산 1병, 목소도(木小刀) 1개	
使奴	2	각각 설면자 2과, 반목보 1건, 주전자 1좌, 황련 4냥	
刀尺	5	각각 설면자 2과, 납접시(鑲碟匙) 1개, 연죽(煙竹) 1개, 주전자(酒煎子) 3좌, 전룡(煎籠) 2건	○
差備下官	26	각각 설면자(雪綿子) 1과	
中·下官	250	각각 설면자(雪綿子) 1과	

<표 2>는 1811년(순조11) 통신사행이 끝난 후 정사와 부사가 막부로 부터 받은 잡물을 사행에 참여한 수행원들에게 분배한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 통신사가 수행원들에게 분배한 물품 가운데에는 담뱃대 39

개와 담배 24봉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담뱃대와 담배는 당상역관 3명, 화원과 사자관 2명, 사공 1명, 工房 2명, 소동 15명, 도척 5명에게 각각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일본산 담배 · 담뱃대와 조일문화 교류

앞장에서 우리는 왜관을 통해서, 그리고 도일했던 사절을 통해서 담배와 담배를 태우는 도구인 담뱃대가 조선에 유입된 정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선에 들어오게 된 담배와 담뱃대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으며, 조선의 생활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일본산 담배는 왜관의 개시 등에서 이루어진 사무역이나 밀무역을 통해 조선에 판매됨으로써, 그리고 왜관에서 이뤄진 양국인의 접촉을 통해서 조선인에게 전해졌다. 특히 왜관에서는 왜관에 근무하는 조선측의 고위 관리들 대부분이 서울에 기반을 두고 파견 나온 지방관이었으므로 그들이 왜관 재직시 받았던 담배와 담뱃대 등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로 전해져서 국내에 유통하게 되었다.⁴⁴⁾ 그리고 원만한 왜관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⁴⁵⁾ 왜관에서 소통사, 군관 등 왜관 솔속 등

44) 1688년(숙종14) 8월에 동래부사 이덕성은 지인인 金昌協에게 日本刀를 선물하였다 (김성진, 『19세기 초 金海人の 生活를 침식한 倭風』, 『지역문화연구』 3, 1998, 79~95 쪽, 양홍숙, 앞의 논문, 124쪽).

45) 쓰시마도주는 역관에게 각종 물화를 지급하여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쓰시마의 조선역관에 대한 대접은 지극하였다. 훈도에게 丁銀 1냥 8전, 별차에게 은 8전을 지급하였다. 즉 연간 은 1000량, 丹木 440근, 水牛角 10桶을 주었다. 이러한 역관에 대한 쓰시마의 관심은 훈도·별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소통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쓰시마도주의 뇌물 중 일부는 소통사 외에도 子, 서계색, 館直, 部長 등 조급이라도 일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심지어 京司의 衙前, 동래부 官奴에게도 지급되었다(權以鑑, 『有懷堂集』 권5, 『倭人蘭出狀啓』; 『숙종실록』 권48, 숙종 36년 3월 갑오(29일). 양홍숙, 앞의 논문(1999), 130~131쪽).

하급직역 종사자에게 출입 때마다 지급한 담배와 담뱃대는 물론이거니와 통신사행과 문위행 과정에서 수행원으로 참여한 소동, 사공, 도척, 소통사 등 아랫사람들에게 잡물 명목으로 지급된 담배나 담뱃대는 동래 지역을 비롯한 국내 장시를 통해서 유통되었다.⁴⁶⁾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조선 국내에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는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매우 비쌌으며,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⁴⁷⁾

일본산 담배의 조선 국내 유통은 경상도 지역의 민요에도 반영되었다. 담배에 관한 민요는 ‘담방귀타령’이라고 한다. 이외에 ‘담배타령’·‘담배노래’·‘담방구노래’ 등의 이름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⁴⁸⁾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 담바구야/너거국이 좋다해도 대한민국
을 내나왔네/한때는 앞동산홀고 또한때는 뒷동산에 흠어서/낮이되면
실안개 베자찌우고/밤이되면 밤이슬맞고 고이곱게 잘길러서/...⁴⁹⁾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울산 담바구야/ 너거국에 좋다더니/ 우
리국에 어야왔소/ 가지왔소 가지왔소/ 담박꽃씨를 가지왔소/ 저기
야 저산말에/ 이리저리도 흘쳤더니/ 그담박 점점자라서/ 낙락수가
되었네/ 은장도 들은칼에/ 으쓱으쓱 빗어넣고/ 영감쌈지는 한쌈지
요/ 총각쌈지는 두쌈지요/ 목구녕에는 실안개들고/ 청룡황룡은 지

46) 동래부 읍내 장시에서는 “米, 荳, 麩麥, 綿布, 緞紬, 廣魚, 鯊魚, 靑魚, 北魚, 大口魚, 八梢魚, 乾鮑, 海蔘, 淡菜, 海衣, 海菜, 蜂蜜, 鑰器, 磁器, 釜鼎, 木物, 竹物, 紙地, 煙草, 簾席, 牛糞”이 거래되었다.(박용숙·김동철, 『개항기의 부산』 818~819쪽. 박재환 외, 『부산의 장터』, 부산발전연구원, 2007, 41쪽.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유통 기구와 상품』, 『역사와 경계』 97, 2015, 222~224쪽에서 재인용).

47)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권 70, 『부록 상』에는 “25일, 입직하였다. 倭黃連 1냥·倭煙杯 1개를 하사받았다”라고 하여 이덕무가 정조로부터 일본산 담뱃대를 하사받은 기록이 있다. 즉, 일본산 담뱃대가 국왕에게 까지 들어갔으며, 귀한 선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48) 임동권, 『한국민요집』, 집문당, 1974.

49) 『담배타령 [담바구 타령]』(박경수·황경숙 편저, 『동부산 문화권 민요(II)』,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4, 66~67쪽.

고뫼온다.⁵⁰⁾

위의 담배타령은 부산 지역에서 널리 불리는 민요로, ‘담바구타령’, ‘담배타령’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서도 널리 전해지고 있다. 이는 담배 수요의 증가와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담배 타령 또한 경상도 지역을 넘어 전국화된 것으로 보인다.⁵¹⁾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 가운데는 전라도 진안에서 생산되는 진안초와 평안도 삼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삼등초가 300여 년 동안 최상의 담배로 유명했고, 명성이나 품질, 생산량에서 담배는 평안도산이 으뜸이었음에도 불구하고⁵²⁾, 민요의 노랫말에 ‘동래 울산의 담바구’ 등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담배가 왜관이 위치한 동래지역을 통해서 전해졌으며, 왜관을 통해서 수입된 일본산 담배가 최상의 담배로 알려져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담배는 담배 자체뿐만 아니라 담배도구(煙具)로 통칭되는 담뱃대(煙竹), 담배서랍(煙盒), 담배 재떨이(恢取器), 담배주머니(煙袋), 연로(煙爐) 등 그에 따른 부속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만드는 데도 공예기술이 필요하였다. 그 가운데 흡연자들에게는 최상의 기호품으로는 당연히 담뱃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최고급 명품 담뱃대를 생산하는 곳은 동래 지역이었다. 東萊煙竹, 釜山煙竹으로 불리는 동래와 부산의 담뱃대는 최상의

5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 민요 집성』, 세종출판사, 2002, 245~246쪽.

51) “구야 구야 담바구야/ 동래 울산에 담바구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73680&cid=50223&categoryId=51052>). 충북 음성에서 채록된 ‘담바구 타령’, “구야 구야 담방구야/ 동래 월산에 담방구야/ 너그 국은 어따 두고/ 조선국으 나왔느냐/ 조선국이 좋다 히서/ 조선국으 나왔더니/ 우리 국만 못허더라”(김익두, 『전북의 민요』, 전북에향운동본부, 1989.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서 채록된 ‘담바고 타령’).

52) 무명자집』 시고 제1책, 『詩』, 在洋有人以煙草歌命題賦百韻 押煙 以速爲善 余亦走筆, 李晩永, 『南靈歌』, 『才物譜』; 안대희, 앞의 책, 146쪽 재인용.

제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동래산 연죽은 대개 대꼬바리가 백동이였다. 『임원경제지』 『臆用志』에서는 “우리나라 연초는 왜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담뱃대도 동래 제품이 좋다. 왜국에 가까워 그 제조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동래가 담뱃대 제작의 명산지로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임원경제지』 『倪圭志』에는 동래 특산물로 담뱃대인 ‘煙盃’가 수록되어 있다. 담뱃대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장한다. 담뱃대는 잘 말려 썬 담뱃잎을 대통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로, 煙竹, 煙管, 煙盃라고도 하였다.

왜관이 있는 동래, 부산의 담뱃대가 최상품이었다는 사실은 “소상반죽 부산죽에⁵³⁾ 담배 한 대를 붙여 무니/목구녕 안에 실안개 돈다”⁵⁴⁾라고 노래하는 충청도 음성의 ‘담바구 타령’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춘향전』의 각 이본에도 명품 담뱃대가 등장하는데 李古本에서는 “은수복 부산대 김해간죽 길게 맞추어 죽으로 세워놓고”라 하여 은으로 수복자를 상감한 부산대와 김해간죽을, 남원고사본에서는 “待客初人事는 康壽福 獻壽福의 釜山竹, 舒川作 瀟湘斑竹, 洋漆竿竹, 刻竹, 漆竹, 瑞山龍竹, 白簡竹이 수수하다”라 하여 역시 문자를 새긴 부산죽과 충청도 서천과 서산의 담뱃대를 명품으로 꼽았다. 李惟命(1767~1817)은 무사의 풍모를 묘사하며 “부산의 연죽과 통영의 칼을, 소매 가득 휴대하고 의기도 호방하다”⁵⁵⁾라 하였고, 정조의 사돈인 洪仁謀는 “동래부의 백금 연죽은 은꽃을 아로새겼고, 평양의 닥종이 씌지는 주름을 잡은 무늬라네”⁵⁶⁾라고 하였다.

53) ‘소상반죽 부산죽’에서 ‘소상반죽’은 ‘瀟湘에서 나는 斑竹’으로 숨겨있는 장인이라야 만들 수 있는 귀한 물건을 의미한다.

54) 『담바구타령』(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편), <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701>, 2020. 1. 7.).

55) 이유명, 『東浦齋草』, 『待先達』 2. 장서각 소장본.

56) 洪仁謀, 『足睡堂集』 권2, 『煙茶』 한국문집총간 속103집.

따라서 조선후기 최상품의 담뱃대 산지는 동래 또는 부산이며, 동래·부산 지역의 담뱃대가 전국에서 최상품으로 알려진 배경에는 왜관과 일본사행을 통해서 유입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영향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⁵⁷⁾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담배문화를 왜관 내지 한일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그것을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5세기말 아메리카에서 서양으로 전래된 담배는 급속히 전파되어 16세기에 필리핀 등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고, 17세기 초반에는 조선에 전래되었다. 담배는 급속히 보급되고 재배되어 17세기 초부터 한반도의 절대 다수가 즐긴 기호품의 제왕으로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물질이 되었다. 국내에서 담배의 수요가 증가하자 담배 생산농가에서는 자신들의 소비 충족 외에 판매를 고려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담배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1620년대가 되면서 조선은 그 잉여생산물을 새로운 시장인 중국으로 전파하게 된다. 조선의 대다수 지역을 흡연자로 넘치게 만든 담배는 자연스럽게 흡연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중국 북방지역으로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18세기에는 국내에서 담배의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담배의 재배가 곡

57) 담뱃대는 조선후기부터 鑪器와 함께 동래의 명물로 손꼽혔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동래연관조합을 통해서 다량의 담뱃대가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팔렸다(『매일신보』 1918년 02월 10일 [372]『東萊: 煙管(담뱃대)組合好況』). 그리고 1922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는 동래는 예부터 담뱃대로서 유일무이한 生道를 삼아 왔으므로 수백년 전부터 수공업이 매우 발달하여 수천 명의 직공이 생활하고, 6년 전에 연관 조합이 결성되어 품질을 개량하고 다방면의 경제계를 발전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재배보다 이익이 커지자 농민들은 곡물을 재배하던 비옥한 토지에 담뱃잎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지역 전체가 담뱃잎을 재배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이로써 담배는 조선후기에 중요한 상품작물로 등장하였으며, 담배 수요의 증가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담배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산 담배, 즉 지사미는 최고급 담배로 인기가 있었으므로, 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 청에 지사미를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가공 기술면에서 조선에 앞선 일본산 담배는 담배가 전파된 첫 1세기 동안 동아시아 흡연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 인기 덕분에 가공한 일본산 담배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던 지사미란 이칭이 담배 자체를 뜻하는 범칭으로 통했다.

먼저, 일본산 담배는 1609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쓰시마의 상인들이 왜관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왜관무역을 통한 수입되었다. 다만 담배는 공무역의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왜관의 개시 등에서 이루어진 사무역이나 밀무역의 형태로 수입되어 조선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즉, 쓰시마의 상인들이 일본산 담배를 왜관에 가져와 조선 정부와 조선 상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던 것이다.

둘째, 왜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선물을 통한 유입을 들 수 있다. 왜관은 조선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왜관의 운영과 대일 교류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이 왜관을 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인이 접촉하면서 문학 교류·기술 교류·미술 교류가 진행되었고, 양국인의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물의 전달과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담배와 담뱃대도 조선에 전해졌다. 특히 왜관과 직접 관계되는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쓰시마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군관과 소통사는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대표적인 통로였다.

다음으로 통신사행과 문위행 등 일본사행을 통한 유입을 들 수 있다. 통신사와 문위역관 등이 공예단 외에 막부쇼군이나 쓰시마도주, 막부 또는 쓰시마 측의 고위 관료나 측근에게 사적으로 전달하는 사예단에 대해 막부측과 사행이 지나는 각처의 번주 등이 삼사에게 답례로 예물을 지급한 사예단에 담배와 담뱃대가 포함되었다. 귀국 후 사신들은 담배와 담뱃대가 포함된 사예단을 ‘잡물’이라는 명목으로 수행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이렇게 조선에 들어오게 된 담배와 담뱃대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로 전해져서 국내에 유통하게 되었고, 조선 국내에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는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매우 비쌌으며, 국왕이 신하에게 선물로 줄 만큼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동래지역을 비롯한 국내 장시를 통해서 유통되었다. 이러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유통은 경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담배타령’·‘담배노래’·‘담방구노래’ 등 민요로 널리 불리고 ‘동래 울산의 담바구’라는 노랫가사로 전승되었다.

또한 일본 담뱃대의 영향으로 동래연죽과 부산연죽이 조선의 최고급 명품 담뱃대로 알려지고, 동래가 담뱃대 제작의 명산지로 문헌에 기록되었다. 이렇듯 동래·부산 지역의 담뱃대가 최상품으로 알려진 배경에는 왜관과 일본사행을 통해서 유입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광주여대 정성일교수께서는 논문에서 이용한 對馬宗家文書を 검토, 내용상의 오류와 오자를 꼼꼼하게 지적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增正交隣志』
 『谿谷漫筆』, 『古芸堂筆記』, 『海東農書』, 『靑泉先生續集』, 『海遊錄』, 『東槎錄』,
 『東槎日記』, 『東浦齋草』, 『足睡堂集』, 『每日申報』
 『館守日記』 1, 2, 3, 4, 5권, 享保 11년, 12년(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2. 저서 및 논문

김강식, 「조선후기에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문화교섭 양상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2016.
 김동철, 「17~19세기 東萊府 小通事의 編制와 對日活動」, 『지역과 역사』 17, 2005.
 _____,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유통기구와 상품」, 『역사와 경계』 97, 2015.
 김성진, 「釜山倭館과 韓日間 文化交流」, 『한국문학논총』 22, 1998.
 _____, 「朝鮮後期 金海의 生活相에 미친 日本文物」, 『人文論叢』 5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 민요 집성』, 세종출판사, 2002.
 김익두, 『전북의 민요』, 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문일평, 「담배고」, 『湖岩全集』 권2, 일성당, 1939 ; 『담배이야기』, 온이퍼브, 2015.
 박경수·황경숙 편저, 『동부산 문화권 민요(II)』,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4.
 성경인·장사훈 편, 『조선의 민요』, 1949.
 안대회, 『담바고 문화사』, 문학동네, 2015.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영학, 「담배의 사회사-조선후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역사와 비평』 12, 1991.
 이종수, 「조선시대 부산과 왜관의 음식문화 교류와 변동 분석」, 『해항도시문화교섭
 학』 14, 2016.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
 임동권, 『한국민요집』, 집문당, 1974.
 정성일, 「倭館 開市 때 제공된 日本料理 기록의 비교(1705년, 1864년)」, 『한일관계
 사연구』 52, 2015.

허지은,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0, 2010.

_____, 「근세 왜관 館守의 역할과 戶田賴母」, 『한일관계사연구』 48, 한일관계사학회, 2014.

大場生與, 「對馬藩による朝鮮側小通事への援助」, 『三田中世史研究』 4, 1997.

田代和生,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藝春秋, 2002 ;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2011.

투고일 : 2019. 11. 08. 심사완료일 : 2019. 12. 02. 게재 확정일 : 2019. 12. 17.

| Abstract |

Late Joseon Period *Wegwa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 Focusing on Japanese Tobacco and Tobacco Pipes -

Chang, Soon-Soon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Japanese tobacco and tobacco pipes brought into Joseon through the *Wegwan* were projected in the lifestyles and culture of the people of Joseon from the perspective of Joseon-Japanese cultural exchange. Most studies on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Wegwan* focused on food, paintings and ceramics, but no studies were conducted on tobacco.

Japanese tobacco was first imported through *Wegwan* when merchants from Tsushima began trading from *Wegwan* after entered the treaty called *Giyuyakjo* in 1609. It is assumed that it was imported in the form of private trade with the opening of the *Wegwan* or smuggling for sales in Joseon. Second, it may have been brought into Korea as gifts while performing *Wegwan* duties. Next is inflow through envoys to Japan such as the *Tongshinsahaeng*(通信使行) and *Munwihaeng*(問慰行). Tobacco and tobacco pipes that came into Joseon were spread to others as gifts, etc. in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nation for domestic distribution, and Japanese tobacco and tobacco pipes were known to be of the highest quality in Korea, making it very expensive. It was treated as a very valuable item in that the king would give it as gifts to vassals, and it was distributed in domestic markets such as Dongnae. Distribution of Japanese tobacco and tobacco pipes was sung as folk songs in not only Gyeongsang-do, but all around the

nation. Furthermore, due to the influence of Japanese tobacco pipes, Dongnae tobacco pipes and Busan tobacco pipes became known as the most luxurious tobacco pipes of Joseon, and Dongnae was recorded in literature as a great producer of tobacco pipes. Likewise, it is evident that tobacco pipes from the Dongnae and Busan regions becoming known as the best products was due to the impact of Japanese tobacco and tobacco pipes that were brought into Joseon through *Wegwan* and envoys to Japan.

Keywords : Wegwan(倭館), Tobacco, Tobacco pipes, Wegwan trading, Cultural exchange, Busan(釜山), Dongnae(東萊)